

## 통합사회에 나타난 합리적 선택의 한계 수업 방향 탐색

김 태 환\*

**【요약문】** 학교 경제교육에서 합리적 선택은 핵심적인 내용 요소이므로, 통합사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합리적 선택의 한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한 주제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사회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합리적 선택의 한계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경제교육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합리적 선택의 한계를 규범 준수, 공공의 이익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교과서에서도 합리성의 한계, 효율성과 형평성, 시장 실패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 해설에서 합리적 선택의 한계에 대한 사례로 시장 실패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모든 교과서에서 시장 실패에 대한 설명과 사례를 큰 차이 없이 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시장 실패를 다루는 과정에서 효율성, 사회적 최적, 사회 후생 등과 같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합리적 선택, 한계, 시장 실패 세 가지 내용 요소의 논리적 연결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그 한계, 그리고 시장 실패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민교육적 차원에서 합리적 선택과 그 한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시장 실패를 학습하면서 다루는 개념의 수준과 범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경제 전공자가 아닌 교사들도 시장 실패를 가르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교육과정에 구체적인 방향이나 설명을 제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경제교육, 통합사회, 합리적 선택, 합리적 선택의 한계, 시장 실패

\* 춘천교육대학교 조교수(ador252@cnue.ac.kr).

##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학교 경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과 경제교육에서 가계의 합리적 선택은 핵심적인 내용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 학생들은 이미 소비자로서 경제적 행위를 하면서 살고 있으므로, 그들이 실제 삶에서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합리적 선택의 필요성, 방법 등을 나선형 교육과정에 따라 초중고에서 심화하면서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다(박영석, 2018). 이러한 합리적 선택과 관련하여 어떠한 점에서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완전 경쟁이나 외부효과 등을 다루면서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었으나,<sup>1)</sup>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함께 등장한 통합사회에서 ‘합리적 선택의 한계’라는 내용 요소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에서는 합리적 선택의 한계 사례로 시장 실패를 명시하면서 이전에 비해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합리적 선택의 한계를 다루도록 하고 있다.

경제교육에서 학생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서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다루는 것은 섬세하고 논리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경제적 합리성을 잘못 이해하거나 합리적 선택의 문제를 더 크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리적 선택과 합리적 선택의 한계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학생들에게 합리적 선택의 한계에 유의하면서 최대한 합리성을 발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 선택의 한계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써 불완전 경쟁이나 외부효과 등과 같은 시장 실패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시장 균형, 사회적 후생, 효율성 등과 같은 개념들을 다루게 되는데, 이를 학교 경제교육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경제 영역에서는 합리적 선택의 의미만을 다루고 있고, 중학교 사회 경제 영역에서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통해 시장 균형과 효율성을 학습할 수 있으나 통합사회 교육과정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 요소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통합사회 교육과정에는 시장 균형이나 후생 등에 대한 개념을 학습할 수 있는 영역이 없고, 비용-편익 분석에 기반한 합리적 선택을 학습한 후 곧바로 합리적 선택의 한계로서의 시장 실패를 학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합리적 선택과 시장 균형, 효율성 등의 관계와 시장이 실패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

1) 2015 개정 교육과정 선택과목 경제에서는 수요-공급과 시장 균형을 다루는 영역에서 시장 실패가 제시되고 있으나, 합리적 선택 또는 그 한계와의 관련성에 대해 다루고 있지는 않다.

념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합리적 선택의 한계를 합리적 선택 그 자체의 문제로 인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교수학습 방법 측면에서 합리적 선택의 한계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합리적 선택의 한계를 이해하는 과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합리적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오인할 수도 있다. 이는 초·중·고 경제교육에서 합리적 선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반대되며, 같은 맥락에서 사회과 경제교육의 목표인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시민 양성’과 배치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고등학교에서 필수로 경제를 학습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인 통합사회 교육과정에 합리적 선택의 한계까지만 제시되어 있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다루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합리적 선택의 한계에 대한 오해는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통합사회에서 제시되고 있는 합리적 선택의 한계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 현장에서 합리적 선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사회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합리적 선택의 한계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둘째, 합리적 선택의 한계로서 시장 실패를 다루는 방법을 제안하고 수업 방안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시점인 2025년에 학교 현장에서 합리적 선택과 한계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II. 합리적 선택의 한계 관련 이론적 논의

### 1. 경제교육에서의 합리적 선택의 한계 및 교과서 분석 관련 선행연구

경제교육에서 합리적 선택은 핵심적인 내용 요소이므로 그동안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나 합리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많이 수행되어 왔다. 합리적 선택의 한계는 합리적 선택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합리적 선택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것은 기회비용이다. 경제교육에서도 합리적 선택과 기회비용의 관계를 이론적, 논리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다. 장경호(2011)는 합리적 선택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

는 개념인 기회비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회비용의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비용보다 편익이 큰 경우 합리적이라는 간단한 명제가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오영수(2017)는 합리적 선택과 관련하여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 선택의 개념과 기회비용, 제약조건 등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내용, 정확성이 결여된 교과서 내용 기술 등의 수정 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합리적 선택의 과정에서 기회비용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기회비용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편익과 비교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 곧 합리적 선택의 과정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인 합리적 선택의 한계를 다룰 때에는 경제 주체들이 편익과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완전하게 합리적 선택을 한 경우를 전제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 선택의 실패가 아니라 합리적 선택을 성공적으로 했으나 그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리적인 선택에 실패하는 것과 관련하여 ‘비합리적 선택’을 다루는 것은 교수·학습을 용이하게 하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합리적 선택은 합리적 선택이 아닌 비합리적 선택 행위와의 비교를 통해 학습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기존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활용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영수(2020)는 벤드웨건 효과, 스눙 효과 등과 같이 비합리적인 소비로 분류되는 소비의 외부성을 가지는 행위들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합리적 소비와 비합리적 소비는 과정과 동기, 계획성, 논리성 등을 중심으로 재평가 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합리적 선택의 한계는 비합리성과 유사해 보이지만, 상당한 거리가 있다. 비합리적 소비는 경제적 합리성의 존재를 인정하고 최종 목적지로 전제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을 했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합리적 선택의 한계가 아니라 합리적 선택 자체는 문제가 없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선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므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더욱 경제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가 된다.

행동 경제학에서 출발한 인간의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비판과 관련된 연구도 수행되었다. 한진수(2007)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행동 경제학의 몇 가지 실험을 수행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한다는 것을 도출하고,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경제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한편 전창완(2010)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행동 경제학의 최종 제안 게임을 실행하여

경제교육과 합리성 한계에 대한 분석하였는데, 연구를 통해 경제교육만으로 학생들의 합리성을 증진시키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론에는 차이가 있으나, 두 연구는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합리적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을 밝혔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와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합리적 선택의 한계는 합리성의 한계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통합사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합리적 선택의 한계는 ‘합리적으로 선택했으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고, 행동 경제학에서 지적하는 점은 ‘인간은 완전히 합리적이지 않다(또는 합리적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합리적 선택의 한계를 논의할 때에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전제하므로 두 선행연구의 논의는 본 연구의 주제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내용이 통합사회 교과서에서 등장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정리해보면 합리적 선택, 비합리적 선택, 기회비용, 합리성의 한계, 경제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경제학과 관련된 오개념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 합리적 선택의 한계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합리적 선택의 한계와 시장 실패를 수업 시간에 어떻게 다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합리적 선택 관련 논의를 일부 활용하면서, 합리적 선택의 한계와 시장 실패 문제를 다루기 위해 사회과 경제교육 통합사회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구체적인 경제 내용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 선택과 한계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면서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사회과 경제교육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이 무엇을 대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선 박영석(2018)은 초·중·고 학교급별로 희소성과 합리적 선택 관련 내용의 계열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연구하여, 초·중학교와 비해 고등학교 통합사회에서 학습 내용의 누락과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김태환(2019)은 통합사회 교과서의 ‘시장 경제와 금융’ 영역에 나타난 탐구 활동 분석을 통해 교과 간 통합보다는 경제에만 한정된 탐구가 많고, 통합의 관점이 반영된 탐구 활동 중에는 교육과정에 부합하

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민세진(2020)은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와 대학 경제학 교재와의 비교를 통해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은 기업과 가계의 경제 활동 영역에서 다루고, 분배의 경우 기본적인 경제문제와 경제 체제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태환(2023)은 2015 개정 통합사회 교육과정과 교과서, 2022 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와 경제에 나타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매개로 하여 요구될 때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고, 특정한 내용 요소나 탐구 활동 등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새로운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시기에 이전 교육과정 및 교과서와의 비교·분석을 수행하므로 연구의 차별성이 있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업의 방향을 제안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 2. 합리성과 시장 실패에 대한 이론적 논의

합리적 선택과 시장의 효율성, 합리적 선택의 한계로서의 시장 실패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경제학의 개념과 이론을 다루게 된다. 이러한 내용들은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틀을 제공한다.

우선 개별 경제 주체들의 행위를 다루는 미시경제학에서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소비자의 경우 효용 극대화를 위해,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화(Optimization) 행위를 한다. 이러한 최적화는 개인이 조절할 수 있는 변수들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데, 비용-편익의 원리는 이러한 최적화 과정에서 활용되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원리이다.<sup>2)</sup> 이러한 합리성을 가진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시장에서 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이

2) ‘비용-편익의 원리1’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와 관련된 것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말지 결정 시, 순편익이 0보다 크면 선택을 해야 하고, 반대로 0보다 작으면 선택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비용-편익의 원리2’는 몇 단위를 소비해야 할 것인지와 관련된 것으로 순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동일한 수준에서 상품을 소비해야 한다는 원리이다(김영산·왕규호, 2020). 통합사회에서 제시되고 있는 ‘비용 대비 만족감이 큰 선택이 합리적이다.’는 것은 첫 번째 비용-편익 원리에 대한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진로 선택과목 경제에서 ‘한계(marginal)’의 개념을 배우므로, 두 번째 비용-편익의 원리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해관계를 조율하고 욕구를 충족할 수 있으며 이는 매우 효율적인 상태로 본다. 교육 과정에 등장하는 합리적 선택과 연결지어 보면, 시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개인들은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합리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후생(Social welfare)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개념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사회적 후생은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얻은 추가적인 이익의 합인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들이 얻은 추가적인 이익의 합인 생산자 잉여의 합으로 측정된다. 교육과정 기준으로 잉여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시장 거래에 참가한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이 이득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볼 수 있다. 완전하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경쟁적인 시장에서 만나서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 가격에서 상품을 거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시장 균형이 형성된다. 이러한 시장 균형에서는 상품에 대한 지불용의금액과 상품 생산에 들어간 한계비용이 일치하게 되는데, 이 상태를 사회적 최적(Social Optimum)이라고 한다. 그리고 시장 균형 상태인 사회적 최적 지점에서 사회적 후생이 가장 크게 된다. ‘시장이 효율적이다, 효율성을 가진다.’는 것은 ‘시장에 수많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존재하여 경쟁적인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의 효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쟁적인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에서 사회적 후생이 가장 크다는 것을 말한다.<sup>3)</sup>

경제 주체의 최적화와 자유 거래, 사회적 최적과 후생 등은 수요-공급과 시장을 활용하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통합사회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III장에서는 본 장에서 검토한 내용과 제시한 내용에 근거하여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3) 경쟁시장에서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며,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다. 이는 특정 시장만을 분리해서 가격과 수량을 살펴보는 부분균형분석의 결과에 따른 것이며, 일반균형분석에서는 교환에서의 효율성, 생산에서의 효율성 등과 같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효율성 개념이 등장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교환과 경쟁적 과정을 거쳐 파레토 효율적인 상황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이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시장가격을 가진 경쟁시장은 파레토 효율적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후생경제학의 1정리)(Pindyck, R. S. & Rubinfeld, D. L., 2016: 699-735). 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는데 실패하는 조건이라는 측면에서는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없고. 중학교 경제, 고등학교 선택과목 경제에서도 이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효율성을 잉여의 합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 Ⅲ. 합리적 선택의 한계 관련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본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사회가 적용되고 있고, 다음 해인 2025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사회가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는 새로운 통합사회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준비해야 하므로, 두 교육과정과 그에 따라 만들어진 교과서를 비교·분석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본 장에서는 두 시기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합리적 선택과 한계 부분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한다.

비교 분석 대상은 2015 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 문서와 2022 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 문서이며, 2015 개정 통합사회 5종 교과서, 2022 개정 통합사회 6종 교과서의 내용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교과서 간 내용 비교 분석, 비판 및 개선 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 분석을 토대로 하여 합리적 선택의 한계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교과서명은 특별한 의미를 담지 않고 알파벳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 1) 사회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합리적 선택의 한계 비교<sup>4)</sup>

##### (1) 2015 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에 제시된 합리적 선택의 한계

통합사회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함께 등장한 과목으로 일반사회, 역사, 지리, 윤리 과목 간 통합을 목표로 주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교과 별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5) 시장경제와 금융’에서 경제교육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이를 경제 영역으로 보고 분석을 하도록 한다. ‘(5) 시장경제와 금융’에 제시된 합리적 선택과 한계와 관련된 성취기준과 해설,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4) 사회과에서 교육과정을 비교하는 연구에서는 성취기준과 관련 설명 모두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성취기준, 성취기준 해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을 분석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 ‘(5) 시장경제와 금융’

---

성취기준

[10통사05-01]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을 조사하고, 시장 경제에서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그 한계를 파악한다.

(나) 성취기준 해설

[10통사05-01] ...합리적 선택이란 비용보다 편익을 크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선택의 효율성만 추구할 경우 공공의 이익이나 규범 준수 등을 간과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 선택과 더불어 그 한계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한다.

(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시장의 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주체들의 역할 등은 모듈별 토의를 통해 탐구하게 할 수 있다.

---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성취기준 [10통사05-01]에서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한계를 함께 학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성취기준 해설을 보면 효율성만 추구할 경우 공익과 규범을 어길 수 있으므로 그 한계를 다루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논리적으로 정리하면, 개개인이 상품 소비로부터 얻는 편익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되면,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규범에 반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이것이 곧 합리적 선택의 한계라는 것이다. 한편, ‘공공의 이익이나 규범 준수 등을 간과할 수 있으므로’라고 기술되어 있으므로, 사익 추구의 과정에서 공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더라도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합리적 선택의 한계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 교과서 분석에서도 다시 언급하겠지만, 대부분의 교과서가 공익과 규범 준수라는 틀 안에서 합리적 선택의 한계를 설명하고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2022 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에 제시된 합리적 선택의 한계

2022 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2에 제시된 ‘(3) 시장경제와 지속가능발전’ 영역에서 합리적 선택과 한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성취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022 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 ‘(3) 시장경제와 지속가능발전’

---

[10통사2-03-02]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그 한계를 파악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에 관해 탐구한다.

(가) 성취기준 해설

[10통사2-03-02]에서는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합리적 선택의 한계로 인해 나타나는 시장 실패를 다루도록 하며...

(나)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시장경제 체제 아래에서 경제 주체들이 효율성을 기준으로 행동하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제시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도 동일하게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그 한계를 파악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성취기준 자체에서는 큰 차이는 없으나, 성취기준 해설을 보면 ‘합리적 선택의 한계로 인해 나타나는 시장 실패를 다루도록 하며’라고 되어 있어, 시장 실패를 중심으로 합리적 선택의 한계를 학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앞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합리적 선택의 한계로 ‘공공의 이익과 규범 준수 간과’를 제시하였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서는 ‘시장 실패’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거나, 규범을 지키는 것과 경제학에서 만들어진 개념인 시장 실패는 일정 부분 공유하는 내용이 있으나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새 교육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학습할 때에는 이 부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진 교과서를 분석하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된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매우 잘 따르고 있으면서, 교육과정에서 포괄적, 추상적으로 제시된 내용들을 명확하고 구체적인 용어와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통합사회 교과서를 중심으로 합리적 선택의 한계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 1) 통합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합리적 선택의 한계 비교

2024년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 교과서가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고, 2025년부터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만들어진 새로운 통합사회 교과서를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두 교과서에 제시된 합리적 선택의 한계 관련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에서는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현장에서 해당 내용을 학습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 (1) 2015 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 교과서 분석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사회 교과서는 총 5종이 있으며, 본 연구에는 모든 교과서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합리적 선택의 한계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각 교과서에서 합리적 선택의 의미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읽기 자료나 탐구 활동 등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을 정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2015 개정 통합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합리적 선택의 한계

내용 교과서	합리적 선택의 한계 의미(본문)	읽기 자료, 탐구 활동 등
A	본문 기술 없음	[주제활동] 합리적 선택의 한계 '인간은 다양한 이유에 따라 행동하므로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도 자주 하게 된다.' 최종 제안 게임
B	...현실적으로 시장은 완전하지 않으며, 시장 이외의 요소들이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아 경제 주체가 선택의 효율성만 추구할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시사 자료실] - 우편 서비스의 효율성과 공공성 - 손해 발생에 따라 지역 우체국 폐쇄에 대한 공공성 논의
C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개인이 그 선택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때로는 사회 전체의 효용이 커지지 않	[스스로 탐구하기] - 개인들이 저축을 늘리면 안 된다고요? 저축의 역설 사례 - 포드 사는 왜 그랬을까? 효율성만 고려한 비윤리적 생산

내용 교과서	합리적 선택의 한계 의미(본문)	읽기 자료, 탐구 활동 등
	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D	선택의 과정에서 효율성만 추구할 경우 공공의 이익이나 규범 준수와 같은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더 알아보기] 선택의 고려 사항으로서 효율성과 형평성
E	효율성을 추구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로 나타나기도 한다...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례 탐구하기] 불완전 경쟁, 공공재의 특성, 외부 효과의 발생

본문이 없는 A 교과서를 제외한 다른 교과서에 제시된 합리적 선택의 한계 서술 내용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은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서술은 앞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통합 사회 성취기준 해설에 명시된 ‘선택의 효율성만 추구할 경우 공공의 이익이나 규범 준수 등을 간과할 수 있으므로’라는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각 교과서에서 합리적 선택의 한계를 어떠한 의미로 사용했는지는 읽기 자료와 탐구 활동 등을 통해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A교과서에서는 ‘합리적 선택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행동경제학의 최종제안게임을 활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게임을 통해 학생들은 경제학에서는 합리적 경제인을 가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인간은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어렵다는 것을 학습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활동은 합리적 선택의 한계를 파악하기 보다는 ‘경제 주체는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주류경제학의 전제에 대한 행동경제학의 비판과 관련된 활동이다. 즉, 성취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합리적 선택의 한계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완전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하는 경제학의 한계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는 차이점이 있다. 넓게 보면 인간의 합리성의 한계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오류라고 볼 수는 없으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시장 실패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향후 행동경제학을 다룰 때에는 어떠한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B교과서에서는 제지업체들의 담합 문제를 사례로 제시하면서, ‘사례와 같이 기업이 이윤 극대화라는 효율성만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공공의 이익이나 규범 준

수를 간과할 수 있다. 이러한 불공정한 경쟁 행위는 각 기업에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사회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한계가 있다.’로 기술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시장 실패의 사례인 불완전 경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학교 경제교육의 측면에서 독과점과 담합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 유의할 점이 있다. 독과점 기업은 담합과 상관없이 이윤 극대화의 과정에서 완전경쟁적인 시장의 거래량보다 적게 공급하고 가격은 높게 설정하여 전체적인 사회 후생을 낮추어 시장 실패를 가져온다. 이를 기업의 합리적 선택과 연관지어 보면, 시장 지배력을 갖춘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후생 손실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이윤 극대화의 과정에는 불법적 행위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비해 교과서에 제시된 담합의 사례는 명백하게 불법적인 행위라는 측면에서 독점 가격 설정과 일정한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경제학과 학교 경제교육의 목표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학은 본래 공학적 성격과 윤리학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으나 실증적 성격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윤리를 다루지 않게 되고, 경제학자들은 가치중립적인 공학자로 자리잡게 되었다(Sen, 1978; Hausman & Mcpherson, 2002; 홍기빈, 2001, p.45; 이정전, 2005, p.47). 결과적으로 경제학에서의 합리성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도구만 제공할 뿐, 윤리적인 평가를 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경제학의 세계에서 합리적 선택에는 불법적인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경제교육은 가치중립적인 경제학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성 함양이 최종 목표인 사회과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경제교육에서는 윤리, 도덕의 개념이 배제될 수 없다. 어떤 선택이 바람직한지, 옳은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적어도 초·중·고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교육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한 대안에 타인 또는 공동체에 해를 미치거나 불법적인 행위가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결론적으로 학교 경제교육에서의 합리적 선택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는 행위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5)

5) 경제 주체들의 합리적 선택 행위는 이기심에 기반하지만 여기서의 이기심은 타인 또는 공동체에게 해를 주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애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1959)에서 경제윤리사상에 대해 논의하면서 인간의 이타심에 대해 언급하였고, 국부론(1776)에서 이기심의 원리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 두 가지는 모순인 것처럼 보이지

만약 담합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합리적 선택의 한계로 강조하게 되면, 기계와 기업이 자신의 이익만을 좇으며 행하는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합리적 선택의 한계의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범 준수의 측면에서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합리적 선택의 한계로 연결지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시장 실패 사례인 불완전 경쟁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법을 어기는 행위를 제시하는 것은 학생들이 주어진 선택의 대안으로 타인에게 해를 주는 선택까지 고려할 여지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C교과서에서도 불법을 저지른 자동차 제조 회사의 사례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역시 불법적인 행위를 합리적 선택의 영역을 인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 편, C교과서에서는 절약의 역설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개개인의 합리적 판단이 사회전체적으로는 합리적이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에 근거한 적절한 사례로 볼 수 있다.

D교과서의 경우 합리적 선택과 한계를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효율성과 형평성의 관점에 접근하고 있다. ‘우리가 수돗물이 싸다는 이유로 매일 세 번씩 샤워를 하면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겠지만 환경 오염이나 수자원 부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공공의 이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또한,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소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치료제를 생산하지 않는다면 합리성을 추구하는 기업의 선택은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 존중이라는 규범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 선택을 공공성, 윤리성 등과 결부시켜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다른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과 유사하지만, 접근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공공의 이익’을 중심으로 합리적 선택의 한계에 대해 접근한 것으로, 시장 실패 등과 같이 명확한 방향성이 없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접근으로 보인다.

E교과서의 경우 합리적 선택의 한계와 관련하여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인 불완전 경쟁, 외부효과, 공공재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교과서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합리적 선택의 한계를 시장 실패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만 ‘동감의 원리’에 기초한 정의의 원리를 통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은 동감(공감)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인간은 아무리 이기적이라고 해도 타인의 행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한다(심경섭, 2009)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2015 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 교육과정에서는 합리적 선택의 한계를 공공의 이익, 규범 준수 등의 측면에서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교과서에 제시된 사례와 탐구 활동 등에서도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개인의 선택이 사회 전체에는 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선택에서의 윤리성과 가치, 공동체의 이익과 형평성, 공정 경쟁, 시장 실패 등 다양한 사례들이 제시되고 있다.

(2) 2022 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 교과서 분석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사회 교과서는 총 6종이 검정을 통과하였으며, 2025년부터 현장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6종의 교과서를 모두 검토하였으며, 합리적 선택의 한계과 관련된 내용을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2> 2022 개정 통합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합리적 선택의 한계

교과서	내용	합리적 선택의 한계 의미 기술*	읽기 자료, 탐구 활동 등
A	개별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은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선택이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지 않거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것을 <b>시장 실패</b> 라고 하는데...		[지식+] -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완전 경쟁 제재 - 외부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정책 - 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하는 이유
B	...합리적 선택은 일반적으로 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높인다. 그러나 경제 주체가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할 경우 사회 전체의 이익은 감소할 수 있으며,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인 <b>시장 실패</b> 가 나타나기도 한다.		[활동] 비탄세 도입 댐 건설의 비용과 편익
C	...합리적 선택이 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시장은 완전하지 않으며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별 경제 주체가 효율성만을 추구할 경우 오히려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b>시장 실패</b> 가 발생하기도 한다.		[모둠 활동] 공공재 게임하기

교과서	내용	합리적 선택의 한계 의미 기술*	읽기 자료, 탐구 활동 등
D	가계, 기업과 같은 민간 경제 주체가 각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합리적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러한 양상은 시장 원리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b>시장 실패</b> 부른다.		-
E	...경제 주체가 합리성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며 행동하였을 사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면 우리는 이를 <b>시장 실패</b> 라고 한다.		[일상생활 탐구] -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 중고차를 얼마에 사면 좋을까?
F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에 효율적이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b>시장 실패</b> 가 나타날 수 있다.		[탐구활동] - 게임을 통해 공공재의 특성과 무임승차자 문제 체험해보기

※ 6종 교과서 모두 시장 실패 사례 중 세가지(불완전 경쟁, 공공재 문제, 외부효과 등)와 설명을 본문에 제시하고 있음.

참고로 경제학에서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제시되는 것은 시장 지배력(market power), 공공재(public goods), 외부성(externality), 불완전 정보(incomplete information)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과서에서 제시되어 있는 시장 실패의 사례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2022 개정 통합사회 교과서에 제시된 시장 실패 사례

교과서	A	B	C	D	E	F
불완전 경쟁	○	○	○	○	○	○
외부효과	○	○	○	○	○	○
공공재 문제	○	○	○	○	○	○
비대칭 정보	x	x	○	○	○	x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합리적 선택의 한계로 시장



실패를 명시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모든 교과서의 본문에서 합리적 선택의 한계를 설명하면서 시장 실패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문 내에서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인 불완전 경쟁, 공공재 문제, 외부효과, 비대칭 정보 등을 서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서 합리적 선택의 범위가 시장 실패로 명확해지면서 교과서 간 본문 내용의 차이가 더욱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교과서별로 제시하고 있는 활동도 시장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을 통해 얻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종의 교과서를 제외한 5종의 교과서에서 모두 불완전 경쟁과 함께 담합을 동시에 설명하거나 관련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합리적 선택 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업은 합리적 선택을 통해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지만, 그 과정에는 타인이나 공동체에 의도적으로 해를 미치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 즉, 시민성 함양을 지향하는 사회과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제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독과점 기업의 이윤 추구 과정에서 사회 후생을 감소시키는 것과 담합이라는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회 후생을 줄이는 것은 분리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자는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합리적 선택의 한계의 사례가 명확하지만, 후자의 경우 단순하게 합리적 선택의 한계로 제시하기 보다는 ‘윤리성이 결여된 합리적 선택의 문제’, ‘극단적으로 사익만 추구한 경우’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시민교육적 관점에 부합한다.

다음으로 시장 실패의 사례인 불완전 경쟁, 외부 효과, 공공재, 비대칭 정보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시경제학의 개념들이 상당수 제시되고 있다. 교과서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불완전 경쟁 시장, 완전 경쟁 시장, 긍정적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 사회적 비용, 사적 비용, 사회적 편익, 사적 편익, 비경합성, 비배제성, 도덕적 해이’ 등과 같은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다. 시장 실패를 설명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용어들일 수 있으나, 해당 개념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경제학 개념들을 설명하게 될 수 있고, 이는 경제 영역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공재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교과서에서 공공재의 특성으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제시하면서 공공재가 필요한만큼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비배제성의 경우 무임승차 문제와 연관지어 학생

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 선택의 한계 사례로 제시하기에 적절한 개념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경합성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한 재화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 해당 재화의 생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한계비용이 0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공공재가 비효율적으로 공급되는지를 설명하는 도구가 된다.<sup>6)</sup> 그러나 모든 교과서에서 비경합성을 직·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의미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비배제성에 따른 무임승차 문제로 공공재가 부족할 수 있음을 제시하면서 공공재의 다른 특성으로 비경합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비경합성이 어떠한 측면에서 공공재 부족 문제와 연관되는지를 설명하지는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두 시기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합리적 선택의 한계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15 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에서 제시되고 있는 합리적 선택의 한계와 사례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형태로 ‘공공의 이익과 규범 준수’를 제시했기 때문에, 교과서별로 본문과 사례의 내용이 조금씩 다른 측면이 있었다. 공익과 규범이라는 큰 틀에서는 공유하는 지점이 있으나, 법을 어기는 행위를 중심으로 제시했거나, 효율성과 형평성의 측면에서 기술한 경우, 경제적 합리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경우, 그리고 시장 실패를 제시한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본문 내용과 사례와 활동이 제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 교과서는 ‘시장 실패’ 개념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본문과 사례, 활동 등이 유사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자연스럽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경제학 개념과 이론을 더 많이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합리적 선택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성취기준의 목표인데, 시장 실패라는 경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 목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경제학의 많은 개념과 이론들이 학교 현장에서 경제 과목이 기피 대상이 된 중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상황에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다루는 것은 학생들의 일상 중심의 경제교육에서 경제학 이론 중심의 경제교육으로 회귀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6) 비경합성은 시장 스스로 최적 수준의 효율적인 공공재를 공급하는데 실패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활용된다. 공공재의 비경합적인 성격으로 인해 총한계편익은 상품을 소비하는 모든 소비자들의 한계편익곡선들의 수직적 합으로 표현된다. 또한 비경합성에 의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해당 상품을 소비해도 상품 생산에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수와 상관없이 생산에서의 단위 당 한계비용은 동일하다.

## IV. 결과 분석과 수업 방향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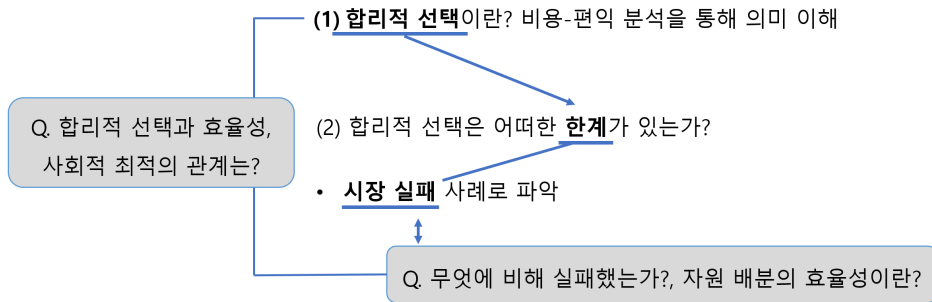
### 1. 분석 결과 논의

앞선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과정과의 통일성이나 교과서 간 내용 일치성이라는 측면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는 교육적으로 더 의미 있는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학 개념과 이론들이 한정적인 공간에서 압축적으로 다루어지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실패를 다루는데 있어서 ‘시장이 실패하지 않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학습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경제교육에서 합리적 선택의 한계와 시장 실패를 다루기 위해서는 합리적 선택과 그 한계가 시장 실패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합리적 선택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러한 합리적 선택을 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논리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또한 제시된 문제점이 시장 실패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실패하지 않은 시장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이 무엇인가에 실패할 때, 그러한 실패가 앞서 학습한 합리적 선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이해해야 최종적으로 성취기준에 제시된 합리적 선택의 한계로서의 시장 실패를 학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합리적 선택과 합리적 선택의 한계 부분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의 흐름을 중심으로 교수학습 과정을 정리하고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1)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따라 합리적 선택의 의미를 학습하게 된다. 합리적 선택은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비용보다 편익을 크게 하는 선택, 순편익을 크게 하는 선택 등으로 제시된다. 여기서는 합리적 선택의 개념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론을 학습하고 활동을 통해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 (2) 합리적 선택을 학습한 후, 합리적 선택에도 한계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합리적 선택의 한계는 불완전 경쟁, 외부효과, 공공재 문제, 정보 비대칭 등과 같은 시장 실패 사례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다.

<그림 1> 합리적 선택과 한계, 시장 실패 학습 과정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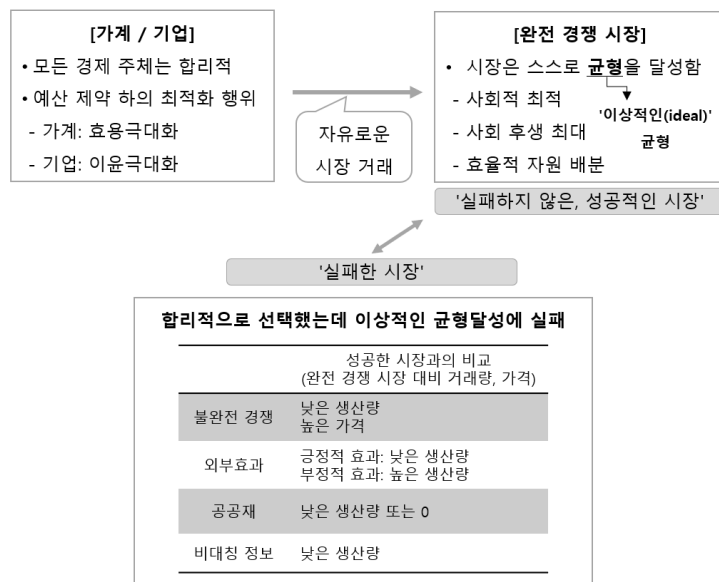
이와 같은 단계로 합리적 선택의 한계로서 시장 실패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림 1>에 제시된 질문과 같이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 선택을 한 상황에서 시장이 무엇에 실패했는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합리적 선택과 시장의 효율성, 사회적 최적의 관계를 학습해야 하며, 시장이 무엇에 실패했는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학습해야 한다. 학생들은 시장 ‘실패’라는 용어에서 무엇인가 합리적 선택과 관련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어떠한 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합리적 선택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서 실패하지 않은 시장과 관련하여 시장 균형, 효율적 자원 배분, 사회 후생 등에 대한 내용을 어떠한 형태로든 다루지 않고서는 합리적 선택의 한계와 시장 실패를 연결짓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 균형, 효율적 자원 배분, 사회 후생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지 않거나, 또는 제시한다면 어떻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내용 구조상 해당 내용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설명하게 되면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다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시장 균형, 효율적 자원 배분 등의 개념이 앞서 학습한 개개인의 비용-편익 분석에 따른 합리적 선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알 필요가 있다. 성취기준에 따르면 학생들은 비용은 적게 하고 편익은 크게 하는 선택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학습한 후에 시장의 효율성, 불완전 경쟁, 외부효과, 공공재 문제 등을 배우게 된다. 개개인의 합리적 소비가 시장의 효율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나아가 그 과정에서 시장은 무엇에 왜 실패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연결이 필요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 교과서에서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것을 시장 실패라고 하는데(교과서A)', '합리적 선택은 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높인다(교과서B)', '...긍정적 외부효과는 대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거나 소비된다(교과서C)',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교과서D)',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거나 소비된다(교과서E)',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교과서F)'과 같은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무엇인지, 사회적 최적 수준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시되지 않은 채 해당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림 1>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합리적 선택의 한계로서 시장 실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 사회적 최적,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생산 또는 소비 등에 대한 개념 이해가 필수적이다. 즉, 합리적 선택으로 인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이에 대한 결과로써 완전하고 이상적인 형태의 시장 균형(실패하지 않는 상태의 시장), 합리적 선택의 한계로 인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이상적인 균형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인 시장 실패에 대한 논리적인 연결이 필요하다. 앞서 제시한 이론적 논의와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 선택과 한계, 그리고 시장 실패를 연결지어 보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합리적 선택의 한계와 시장 실패 연결 도식



교육과정에서는 가계와 기업의 합리적 선택을 학습한 다음 곧바로 시장 실패를 다루므로, 실패하지 않은 시장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완전 경쟁 시장, 효율적 자원 배분 등과 같은 개념들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경제학의 개념과 이론이 등장하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실패하지 않은 시장과 비교했을 때, 실패한 시장은 어떠한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2>에서 [완전 경쟁 시장]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은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인 용어와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어야 한다. 해당 부분은 시장 실패를 다루기 위한 전제가 되는 부분이지만,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다. 교육과정의 핵심은 시장 실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선택의 한계를 이해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합리적 선택의 한계로서 시장 실패의 결과를 다룰 때에도 시장 실패 사례를 통해 합리적 선택의 한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학습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림의 ‘실패한 시장’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효율적 또는 이상적인 상태의 생산량을 중심으로 거래량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러한 거래량의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복잡한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 2. 합리적 선택 수업 방향 탐색

지금까지의 논의와 <그림 2>에 기반하되 통합사회 과목의 목표, 사회과 경제교육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에서 합리적 선택의 한계를 다루는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기본적인 원칙은 다음의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내용을 다루지 않도록 한다.
- 경제학의 개념과 이론을 지나치게 많이 다루지 않도록 한다.
- 합리적 선택의 한계와 시장 실패를 명확하게 연결짓도록 한다.

(1) 불완전 경쟁 : 독과점 기업은 이윤을 추구(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생산량을 줄이고 가격을 높게 책정하게 된다. 이러한 독과점 기업의 행위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 선택 행위지만, 많은 기업들이 경쟁하는 시장에 비해 전체

적인 사회 후생은 줄어들게 된다. 독과점 기업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불완전 경쟁 시장, 완전 경쟁 시장 등과 같은 개념 사용을 지양하도록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완전 경쟁의 존재와 사회적 후생 감소, 효율성 저해 사이에 논리적인 연결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과점 기업의 존재로 인해 상품의 생산량이 낮아지고 가격이 올랐다는 것을 사례로 제시하되 사회 후생 감소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생산량 감소 및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들 중 일부는 상품을 소비하지 못하게 되었고, 구입한 소비자들도 이전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었다. 즉, 독과점이 아닌 경쟁적인 시장이었다면 누군가가 얻을 수 있었던 편익이 아예 사라지거나,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2) 외부효과 :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타인에게 부정적, 긍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생산 또는 소비하는 과정에서 소비 또는 생산이 늘어난다.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한 합리적 소비의 결과 이상적인 생산량에 비해 더 많이 생산되거나, 더 적게 생산되어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제시하여, 외부효과가 합리적 선택의 한계 사례임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효과와 관련된 복잡한 개념이나 설명을 최대한 줄이고 합리적 선택의 한계가 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에게 담배를 피울 때마다 주위에서 피해를 받는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한다면, 담배 소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담배가 이상적인 상태보다 더 많이 소비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공공재 문제 : 공공재는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합리적 선택은 돈을 내지 않고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상품이 적게 공급되거나 아예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합리적 선택의 한계 사례가 된다. 앞 서 교과서 분석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배제불가능성과 비경합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배제불가능성의 경우 무임승차와 연결되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다. 따라서 배제불가능성을 중심으로 일상적 사례를 구성하는 것이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면서 합리적 선택의 한계를 이해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요즘 한 여름에 쉽게 볼 수 있는 횡단보도 근처의 햇빛 가림막과 같이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사례를 활용할 수 있다. 햇빛 가림막의 경우 상황에 따라 경합적으로 소비될 수 있으므로 공공재의 다른 특징인 비경합성을 학습하는 과정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4) 비대칭 정보 : 오늘날과 같이 예측하기 힘든 다양한 위험이 경제 주체들의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정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시장경제 체제가 발전하더라도 비대칭 정보가 만연한 상황에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학에서도 정보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바 있는데, 정보를 다루는 연구의 특성상 주로 현실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그러한 사례들을 학생 수준에서 쉽게 재구성하여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비대칭 정보를 다루는 몇몇 통합사회 교과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중고차 시장과 같은 레몬시장의 사례도 의미가 있지만, 학생들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상품 구입, 중고 마켓에서의 상품 거래 등을 활용하여 재구성하는 것이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시장 실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비대칭 정보로 인해 시장에서의 상품 거래가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회 후생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학습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 V. 결론

합리적 선택과 합리적 선택의 한계, 그리고 시장 실패와 관련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 교육과정과 교과서 비교·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합리적 선택의 한계에 대해 규범 준수, 공공의 이익을 중심으로 비교적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교과서 별로 제시하는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본문 설명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자료나 탐구 활동의 경우 행동 경제학을 중심으로 합리성의 한계를 설명하거나, 담합과 같은 기업의 불법적인 행위를 제시한 경우, 효율성과 형평성을 비교한 경우, 그리고 시장 실패를 제시한 경우 등이 있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 해설에서 합리적 선택의 한계를 시장 실패로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모든 교과서에서 시장 실패를 중심으로 합리적 선택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었다. 본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읽기 자료와 탐구 활동과 같은 영역에서도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시장 실패의 사례인 불완전 경쟁, 공공재 문제, 외부효과, 비대칭 정보 등을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지식으로 볼 수 있는 시장 균형, 자원 배분의 효율



성, 사회적 최적, 사회 후생 등과 같은 개념을 별다른 설명 없이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과정에서는 ‘합리적 선택’과 ‘합리적 선택의 한계로서의 시장 실패’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선택과 시장 균형,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사회 후생, 그리고 시장 실패를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그 한계로서의 시장 실패를 정확하게 다루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비용-편익 분석에 근거한 합리적 선택은 왜 필요하며, 그러한 선택은 효율성 측면에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합리적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시장 실패의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제시된 시장 실패의 사례들이 왜 합리적 선택의 한계인지, 합리적 선택의 한계로서 시장 실패는 효율성과 사회 후생의 측면에서 왜 문제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연결 지을 수 있어야 한다. 합리적 선택과 한계, 시장 실패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성취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사회과의 시민교육적 차원에서 합리적 선택과 그 한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학교 경제교육은 경제학을 모학문으로 하고 있으므로 경제교육에서의 합리적 선택의 과정과 방법은 기본적으로 경제학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학교 경제교육은 합리성을 가진 ‘시민’ 양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도덕적 판단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학생들이 합리적 선택의 한계를 학습하면서 합리적 선택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인식하거나, 선택의 상황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대안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학에서 다루는 시장 실패는 상당히 많은 내용 요소를 담고 있으므로, 통합사회에서 시장 실패에 대해 학습하면서 다루는 개념의 수준과 범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수준, 요구, 교실 상황의 맥락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합리적 선택의 한계로 인해 이상적인 균형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어 학습하도록 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개념이 있다면 최대한 쉬운 용어와 학생들의 일상에 가까운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sup>7)</sup>

7) 시장 실패와 관련하여 각 교과서 별로 다루는 범위와 수준의 차이가 있다. 시장 실패의 사례를 개념 사용을 최소화하여 간단하게 1쪽으로 제시한 교과서도 있고, 완전 경쟁 시장,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도덕적 해이 등과 같은 개념들을 활용하여 3쪽으로 구성한 교과서도 있었

마지막으로, ‘시장경제와 지속가능발전’은 경제 과목이 아니라 ‘통합사회’ 과목의 한 영역이므로 일반사회 또는 경제 전공자가 아닌 교사들도 시장 실패와 같은 개념을 어렵지 않게 다룰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불완전 경쟁, 외부효과 등과 같은 개념과 이론은 비전공자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sup>8)</sup> 통합사회 전체에서 경제 영역이 차지하는 부분은 크지 않으므로 경제학 개념에 대한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성취기준 방향 안내 또는 관련 내용 요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는 성취기준 해설과 성취기준 적용 시 유의 사항 등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현장에서 경제는 어렵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생소하고 복잡한 경제학 개념들이 하나둘씩 통합사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학교 시험이나 수능에서 시장경제 영역이 소위 킬러 문항 출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통합사회라는 과목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사회과 경제교육에서 공들여 쌓아놓은 탑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시장 실패 사례를 활용하여 합리적 선택의 한계가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한다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제시된 목표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경제교육에서 합리적 선택과 그 한계에 대한 관심을 환기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학교 현장에서 일상의 경제 현상을 중심으로 시장 실패를 쉽게 교수·학습할 수 있는 수업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

다. 비대칭 정보의 경우 6종의 교과서 중 3종의 교과서에서만 언급되어 있었다.

8) 통합사회는 일반사회, 지리, 역사, 윤리 교과가 통합되어 있으며, 경제는 일반사회에서도 정치, 경제, 법, 사회문화 중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 상황에 따라 경제학을 배운 적이 없는 교사가 시장경제와 지속가능발전 영역을 담당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교육부(2018),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교육부.
- \_\_\_\_\_ (2022),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7], 교육부.
- 김영산·왕규호(2020), 미시경제학: 미시적 경제 분석의 이해, 박영사.
- 김태환(2019), 통합사회 교과서의 ‘시장 경제와 금융’ 단원에 나타난 탐구 활동 분석, 경제교육연구, 26(2), 131-157.
- \_\_\_\_\_ (2023), 고등학교 경제교육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 경제교육연구, 30(3), 87-113.
- 민세진(2020), 경제 활동 개념에 대한 고찰: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와 대학 교재 비교를 중심으로, 경제교육연구, 27(2), 91-109.
- 박선운·조영달(2011), 청소년의 경제적 합리성과 형성 요인: 경제교육에의 함의를 중심으로, 경제교육연구, 18(2), 59-90.
- 박영석(2018), 학교경제교육에서 ‘희소성과 선택’ 내용의 계열성 분석, 경제교육연구, 25(3), 1-31.
- 심경섭(2009), 아담스미스의 경제윤리사상에 관한 고찰: 도덕감정론을 중심으로, 전문경영인연구, 12(1), 33-47.
- 오영수(2017), 합리적 선택,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칠 것인가?, 경제교육연구, 24(1), 23-40.
- \_\_\_\_\_ (2020), 소비의 외부성과 비합리적 소비,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칠 것인가?, 경제교육연구, 27(3), 1-26.
- 이정전(2005), 경제적 합리성 비판, 철학사상, 20, 45-78.
- 장경호(2011),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 경제교육연구, 18(1), 1-21.
- 전창완(2010), 고등학생의 경제 교육과 합리성, 경제교육연구, 17(2), 17-38.
- 한진수(2007), 선택에서의 제한적 합리성과 경제교육, 시민교육연구, 39(3), 263-284.
- 홍기빈(2001), 아리스토텔레스, 경제를 말하다, 서울: 책세상.
- Hausman, D. M. & McPherson, M. S. (2002), *‘How could ethics matter to economics?’*, Ruth Chadwick & Doris Schroeder (eds.). Applied Ethics: Critical concept in philosophy, Vol.5, Routledge, London & New York.
- Pindyck, R. S. & Rubinfeld D. L. (2013), *Microeconomics, 8th.*, Pearson Education.
- 원규 율김(2016), 미시경제학, 시그마프레스.

Sen, A. (1987), *On ethics and economics*. Oxford: Blackwell Publishers.

[분석대상 교과서]

• 2015 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 교과서

구정화·변순용·장준현·김재준·황병삼·최준화·황지숙·박상재·엄정훈·한보라(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천재교육.

박병기·박철웅·이영호·이우평·김신철·김지현·이철훈·서정일·김원일·강봉균·김민재·신희정(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비상교육.

육근록·김상수·김정훈·김증록·박세호·임정순·지혜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동아출판.

이진석·박지운·안재섭·송훈섭·허수미·조승연·신복숙·서범석·정명섭·이성국·강은경·박정연·이태성(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지학사.

정창우·최원희·김진영·문일호·박홍인·박정윤·박용우·전정재·신종섭·한경화·박재현·이주은·김윤정(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 2022 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 교과서

구정화·오정준·이재현·이진희·강정구·송훈섭·홍용기·김형남·최지나·송성민·김태환·윤예린(2024), 고등학교 통합사회. 동아출판.

박병기·김병선·강수정·이철훈·조수용·이은영·양현서·신희정·이한맘·신두인·황상표(2024), 고등학교 통합사회. (주)리베르.

박윤경·전보애·범영우·이성국·이윤구·채나미·심소현·추정완·최준화·한보라·강병희·김주환(2024), 고등학교 통합사회. 천재교과서.

안재섭·박영경·신복숙·김신철·고경수·박경일·박지운·이철욱·최광희·유상철·황재성·김부현(2024), 고등학교 통합사회. 지학사.

정창우·문일호·신종섭·이수빈·이주은·박홍인·전정재·홍정민·박용우·김현정·박재현·김봉식(2024),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조지욱·이효건·김경오·강은경·노유리·이정식·엄정훈·송민구·강혜원·이호균(2024), 고등학교 통합사회. 아침나라.

<Abstract>

## **Exploring the Direction of Rational Choice and Its Limitations in Integrated Social Studies**

Tae Hwan Kim\*

This study analyzed how the limits of rational choice are dealt with in the Integrated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extbooks to obtain implications for economic educ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the limits of rational choice are presented with a focus on compliance with norms and public interest, and the textbooks also consisted of various contents such as limits of rationality, efficiency and equity, and market failure. I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market failure is clearly stated as an example of the limits of rational choice, so all textbooks presented explanations and cases of market failure without much difference. In addition, concepts such as efficiency, social welfare were used, but there was no specific explanation for these, so a logical connection of the three content elements of rational choice, limits, and market failure is necessary.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following three suggestions were made. First, it is necessary to logically and systematically connect the meaning of rational choice and its limits with market failure. Second, it is necessary to enable students to recognize rational choice and its limits from a civic education perspective. Third,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level and scope of concepts covered while studying market failure.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o provide additional explanations in the curriculum so that teachers who are not economics majors do not have difficulty teaching market failure.

---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dor252@cnue.ac.kr)

168 경제교육연구 제31권 3호

**Key words:** Economic education, Rational choice, The limits of rational choice, Market failure

원고접수: 2024년 11월 09일

심사일: 2024년 11월 10일 ~ 2024년 12월 11일

게재확정: 2024년 12월 11일